

사무라이 주택

17세기 후반 무라카미 성곽 마을에는 천 명이 넘는 사무라이가 살았습니다. 이후 인구는 감소했지만, 에도 시대(1603-1867) 내내 사무라이 거주지로 지정된 지역이 마을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오늘날에도 무라카미에는 이러한 지역이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 사무라이 주택은 일종의 사택이었습니다. 영주가 직원을 위해 지은 주택으로, 대부분 이름뿐인 무사였습니다. 비교적 평화로웠던 에도 시대에는 중급 사무라이가 기록 관리 및 지역 산업 감독과 같은 행정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았으며, 많은 사무라이들이 생계형 농업이나 어업을 병행했습니다. 이러한 신분의 사무라이는 대부분 일반 마을 사람들에 비해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 부유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라카미에는 중급 사무라이를 위해 지어진 5채의 가옥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18세기 후반에 지어진 **와카바야시 주택**입니다. 성터에서 조금 떨어진 에도 시대 무라카미의 사무라이 지역 외곽에 있으며, 보병 부대를 지휘하던 가문이 살던 집입니다.

초가집은 마가리야(“구부러진 집”) 양식으로, 거실과 응접실이 명확하게 구분된 L자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집의 입구는 거실 옆 흠바닥으로 된 공간(도마)을 통해 들어가며, 이로리 난로가 중앙에 있습니다. 난로에는 항상 불을 피워 집안을 따뜻하고 건조하게 유지했습니다. 이로리 옆에는 주로 창고로 사용되었던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사다리가 있습니다. 거실 너머에는 가족들의 침실과 집안의 가장보다 지위가 낮은 손님을 맞이하는 방이 있습니다.

집의 반대편은 주로 고위 관리와 같은 중요한 손님 전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방문객은 툇마루를 통해 들어오게 되며, 다다미가 깔린 한 쌍의 방으로 연결됩니다.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던 안쪽 방에는 장식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골방(도코노마)과 빛이 들어오는 미닫이문(후스마)이 있고 인접한 정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접실은 사무라이 사회에서 위계와 격식을 중요시했음을 나타내며, 다른 4채의 가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모두 직사각형이며 와카바야시 주택보다 작는데, 이는 다소 지위가 낮은 사무라이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3채는 마이즈루 공원에 있습니다. **후지이 주택**은 1850년에 지어졌으며 성곽 마을의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등 공식적인 임무를 맡은 중급 사무라이의 가옥이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더 작은 **다카오카 주택**과 **이와마 가옥**은 장식적인 디테일이 거의 없는 소박한 사무라이의 가옥 형태를 잘 보여 줍니다. 공원 바로 남쪽에는 **나리타 주택**이 있는데, 5채의 가옥 중 가장 최근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건축적 특징이 있습니다.

와카바야시 주택은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이며, 나머지 4 채는 무라카미시에서 문화재로 등록한 건물입니다.